



주 제:	“ 주님의 사랑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09년 6월 14일
복음 묵상:	[마르 14,12-16.22-26]	[출애 24,3-8]	[히브 9,11-15]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1 독서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피로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과 피로써 계약을 맺어주셨다. 또한 2 독서에서 말하듯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드셨고, 하느님께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서 다른 무엇이 아닌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만들어주신 하느님과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로 가는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예수 성심 성월동안 체험해야 할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이다.

파스카 양을 잡아 그 살로 배를 채우고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이스라엘, 파스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꺼이 그 파스카 양이 되어주셨다. 당신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고 당신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사랑은 자신을 직접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자신을 직접 던짐으로써 다른 누구의 피가 아닌 당신 피로 계약을 완성해 주셨다. 이 계약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 응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이웃에게 생명의 음식이 되어 주는 것으로, 밥이 되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밥은 저절로,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을 씻어야 하고, 불을 지피 끓이고 뜸을 들여야 한다. 실질적인 움직임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 당장은 이웃에게 밥이 되어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밥이 되는 과정을 살아갔으면 한다. 예수님께서서 자신을 직접 양식으로, 밥으로 내어주셨듯이, 우리 각자도 밥이 되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밥이 되어 주심으로 죽음마저 이겨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사랑의 밥이 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약의 완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마르 14, 22) (수원 오정섭 신부님 강론에서)



예언 말씀

- +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너무 힘들다 울지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지금 비록 어둡고 지쳐 힘들고 괴롭지만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 슬퍼한다. 비운 뒤 하늘이 맑게 개듯이 나의 약속은 이뤄질것이다. 너를 위해 새로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단다. 너의 이 순간의 고통을 담대하게 이겨내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 + 흔들리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너희는 나를 증거하는 용맹한 군사이다.
- + 내가 그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는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였고 약했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그 영광을 위해 그 십자가를 즐겁게 받아 들이고 순명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 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오기까지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 + 여러분이 나의 이름으로 걸어온 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길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 + 내가 2000 년전 그 고통의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내가 오직 그 고통의 길, 나의 길을 걸어간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해 나의 길을 따라 오십시오.



무교절 첫 날에는 과일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께서 드실 과일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성 안에 들어 가면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 가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 가는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일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이층방을 보여 줄 터이니 거기에서 준비해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떠나 성안으로 들어 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일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잘 들어 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 갔다.



1분 명상

♡'예수 성심의 약속♡



Pompeo Batoni, Sacro Cuore di Gesù, 1780

-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들의 지위에 요긴한 은총을 준다,
- 저들의 가정에 평화를 준다,
- 저들의 모든 근심 걱정중에 위로를 준다,
- 저들이 살아 있을 때와 특히 임종시에 저들의 의탁이 될 것이다,
-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다,
- 죄인들은 내 성심에서 무한한 인자의 샘과 바다를 얻을 것이다,
- 열심한 자는 빨리 완덕에 나아갈 것이다,
- 내 성심 상본을 모시고 공경하는 집안에 강복할 것이다,
- 사제들에게는 극히 완악한 마음이라도 감화시키는 은혜를 줄 것이다,
- 내 성심 공경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 누구든지 9 개월 계속하여 첫 금요일에 영성체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통회의 은혜를 주어 은총 지위에서 죽게 할 것이다,

예수 성심의 공경

(1) 예수성심 대축일 :

성체성혈 대축일 후 금요일을 축일로 정하고 배반 당하신 성심을 위로한다.
매달 첫 금요일에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수의 수난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팽개쳐져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상하는 지향을 두고 영성체하기를 아홉달 동안 계속한다.

(2) 성시간 : 죽음의 고통에서 고민하신 예수의 수난에 관하여 묵상하거나 합당한 기도를 바친다.

(3) 예수성심 성월에는 특별히 예수 성심께 자신과 가정을 봉헌하고 기도를 바친다.
예수 성심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성심을 공경해야 한다.